

## 문학 토론문

### 「이주의 경험과 문화적 차이 감각: 백석과 윤동주의 경우」

동천(董晨) / 중국사회과학원

「이주의 경험과 문화적 차이 감각: 백석과 윤동주의 경우」는 백석과 윤동주에 초점을 맞추고 두 시인이 일제강점기 한반도와 ‘위만주국’ 사이에서 이주했던 경험과 정체성을 심도 있게 분석하고 구체적인 역사의 맥락 하에서 일본 식민주의 이데올로기에 포섭되지 않은 시인의 이미지를 구축했습니다. 글에서는 이주 경험을 가진 두 시인을 통해 한국문학사의 정착민 중심의 글쓰기 방식을 생산적으로 비판했습니다.

먼저 오문석 선생님 글의 핵심적인 내용을 몇 가지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첫째, 1930년 이후 위만주국으로 이주한 조선인을 단순히 한국의 민족주의적 관점에서 식민주의의 피해자로 규정짓는 것이 아니라 그들 중 다수가 일본 식민자들과 식민주의 이데올로기를 공유했고 이주 경험을 통해 식민 이데올로기를 더욱 강화하기까지 했다는 문제를 직시했습니다. 글에서는 백석과 윤동주의 이민 경험과 작품에 대한 해석을 통해 위만주국으로 이주한 조선인이 식민주의 이데올로기를 돌파하는 역사적 경험을 제공했고 이러한 시각에 내재된 성찰성은 글에서 백석과 윤동주를 분석하는 데 필요한 토대를 구축했습니다.

둘째, 백석의 중국 인식에 대한 해석에 있어 혁신성을 보여주었습니다. 백석의 중국 인식은 당시 위만주국으로 이주한 다른 조선인들과 비교할 때 다소 독특한 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관점은 선행 연구에서도 결코 드물지 않게 보이지만 그러한 독특성이 백석의 현재 중국에 대한 미화와 고대 중국 문화에 대한 동경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판단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오문석 선생님은 작품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거쳐 백석이 자기 자신과 중국인 간에 언어와 행동 면에서 차이가 나는 점에 대해 이질감과 불쾌감을 느꼈다고 지적하고, 이는 백석이 중국인의 감각을 의도적으로 미화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보여준다고 했습니다. 사실, 백석은 열린 자세로 중국인의 행동을 중국 고대 문화의 맥락에서 이해하고자 했습니다. 이는 닫힌 인지체계 내에서 자체 논리로 타자를 단순하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열린 생각으로 타자를 타자로 인식하고 타자를 그 자체의 역사 문화적 맥락에서 이해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는 이러한 해석이 백석 연구에 있어 매우 혁신적일 뿐 아니라 오늘날 한중 양국간의 상호 인식 문제를 고민하는 데 있어서도 매우 생산적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글을 읽고 나서 다소 아쉬운 점은 결론 부분이 다소 성급하고 구체적인 분석에서 핵심을 충분히 드러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오문석 선생님의 글을 읽으며 제가 처음 한중인문학포럼에 참가했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그 때도 저는 토론자로 참석하여 쑨거(孫歌) 선생님의 「상호 인식의 의미」라는 글에 대해 토론했습니다. 오문석 선생님의 글과 「상호 인식의 의미」는 연구 대상이 다르고 엄격한 기준에 따르면 동일한 학문 분과에 속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두 글 모두 나름대로의 방식으로 한중 양국의 문화적 차이와 역사적 맥락의 차이를 직면하고 자신을 상대화하는 의식과 ‘타자’에 대한 개방적 태도를 보여주었습니다.

한중인문학포럼을 개최하는 의미가 바로 여기에 있을 것입니다.